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 해수욕장 현장점검 실시

- 안전관리·바가지 요금·알박기 등 해수욕장 운영 전반 검토
- 피서객 안전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점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3일(월)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과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운영실태를 살폈다.

황 장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요원 증원 배치 및 근무 상황,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표준가격제 운영, 알박기 단속 강화, 감시탑 운영 등을 점검하고, 안전 시설과 장비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황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사소한 빈틈이라도 철저히 확인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바가지 요금이나 알박기 근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되,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용도 존중받는 해수욕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바다온(badaon.or.kr) 및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개장·미개장 해수욕장,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파라솔·튜브 등 이용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 장	진재영 (051-773-5250)
		담당자	사무관	정경수 (051-773-5253)